

전 남

지역 임산물 명품화 박차

도, 158억 투입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갖춰

전남도는 올해 158억원을 투입, 청정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갖출다.

도는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임산물의 가공·유통구조 개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3개 분야 35종의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표고·밤 등 임산물 생산시설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7종) ▲밤나무 토양 개량 및 대체작목 조성(595ha) ▲산채·버섯·약초류 재배 및 생산단지 조성(8종)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임산물 상품화(47개소), 명품 브랜드화(2개소),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1개소) 및 임산물 저장·가공·유통지원 시설(5종) 등에 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를 통해 임산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가공·유통사업을 규모화해 산림 소득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는 숲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 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지를 활용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8개소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단기 산림소득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등

자유립 경영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한·미 FTA 등에 따라 위축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섯·산나물·산약초 재배 등 단기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친환경 청정 먹거리 생산 및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임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장흥 표고·영암 대봉감·광양 밤·구례 산나물 등 비고유위 임산물을 선별과 집중을 통해 생산 및 가공·유통체계를 갖춰 산림소득사업을 내실화·규모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마늘 풍수확 한창

14일 김진군 작전면 평리마을 마늘 밭에서 비웃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마늘 주아(일명 마늘 쫄)를 뽑고 있다. 농민들은 마늘 뿌리로 갈 양분 확보를 위해 주아 줄기를 잘라낸다. (김진군 제공)

나주 원예농협 공판장 화재 무방비

소화전·분말소화기 적재물에 가려져 있고 지하 전등은 고장

나주 원예농협 공판장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나주 원예농협 건물에는 소화전 3개와 분말소화기 등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원협 본동에 설치된 소화전 3개 중 2개가 포장박스나 비료 포대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호스가 분리돼 있

는 등 화재시 무용지물이다. 뿐만 아니라 분말소화기가 적재된 물건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지하 소방시설은 전등이 고장 난지 오래된 상태다.

무허가 불법 하우스등은 과일포장에 필요한 스티로폼과 농약 등이 쌓여 있지만 미니 분말소화기 1개가 고작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곳은 다중 점포시설로 명절기간 소방특별점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소방서는 2010년 한차례 점검을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나주 소방서는 지도·점검에서 시정 조치 등 없이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협 본동에는 14개 정과점포가 영

업을 하고 있고, 원협 2층에는 직원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2000여명이 수시로 원협 창구를 사용하고 있어 1층 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원예농협 관계자는 “소방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업체나 소방사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순영철기자 ycsn@

새농민회·귀농 부부 ‘멘토링’ 결연식 가져



전남 새농민회는 최근 무안군 해제면 황토굴 상항버섯 농장에서 전국 최초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남 새농민회·귀농인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귀농부부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과 귀농교육, 선진지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새농민회 회원들은 올해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행복나눔 운동’과 연계해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멘토링’ 결연을 나섰다.

올해는 나주·구례·곡성·보성·영암지역 선도 농업인 새농민회 회원(5쌍)들이 해당지역 새내기 귀농부부 5쌍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은 ▲농촌 생활 적응 및 조기정착을 위한 영농 방법과 농기계 이용 기술 ▲경영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작목은 화훼와 딸기·고추·버·토마토 재배 등으로 이뤄진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내일부터 20일까지 보성차밭 일원

‘제38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가 16일부터 20일까지 보성차밭 일원인 한국차소리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매년 첫차(茶)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 보성차 생산자조합 주관으로 열리는 녹차대축제는 보성녹차 홍보와 차 문화 보급 및 차 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를 주제로 차 만들기 체험, 찻차 무료시음, 다례시연(사진), 찻차밭 만들기, 차밭 1박 2일 다숙 체험 등 인기 있는 차 문화 행사, 전시관람, 공연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17~18일 이틀간 전국 차 생산

농가와 한국의 근·현대 차인들이 참여해 한국차산업과 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보성 티아트 페스티벌’도 열린다.

‘티아트 페스티벌’은 그동안의 차문화 행사에서 과감히 벗어나 차생산 농가와 차(茶)가 주인이 되는 축제로서 차 맛내기, 차 맛내기, 한국 차를 빛낸 근·현대 차인의 소장품 기증 및 전시를 통해 한국의 차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19일에 열리는 ‘무아차회’는 나를 버리고 차밭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직위·나이·성별에 상관없이 자리를 추첨해 정해진 자리에서 간소하게 차를 우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자신의 차를 대접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중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자녀와 함께하는 전통 모내기 체험

오는 20일 전남도 농업박물관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오는 20일 박물관 야외 자연학습장 무논에서 초·중·고 학생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방식에 의한 ‘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이 못자리에서 한 뼘 정도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찌서 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음을 묶어 만든다. 이어 학생들이 예기지게 지고 썰레일이 끝난 논으로 옮겨 한 다음 못물에 맞춰 한 줄 한 줄 모를 심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 51호)인 진도 ‘남도 들노래’ 예능보유자가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모 찌는 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을 부르면서 모내기 체험의 흥을 돋운다.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



는다.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참가비는 박물관 입장료(성인 700원, 어린이·학생 300원) 이외 따로 받지 않는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모자와 작업복, 수건 등을 지참해야 한다.문의 (061-462-2796)

강석오 관장은 “이번 행사는 잊혀져가는 전통 모내기를 재현, 직접 체험토록 해 선조들의 지혜와 옛 농경생활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유기농 실천보험’ 홍보 곡성군 재배면적도 확대

곡성군은 친환경 농업을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유기농 실천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 유기재배 750ha 면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후 친환경농업 추진시 지원되는 보험으로, 비의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자액은 4000㎡이상 경작 농업인으로 1000㎡이상 농지단위 별로 신청한다. 비·사과·배·감귤·단감·매실·곶감 등 8개 품목에 한해 보조 80%·자부담 20%로 유기농업은 인증 획득시 100%를 지원해 재배 발생시 농작물 재배보험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